

국립국어연구원 소식

1. 해외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및 교사 초청 연수

가.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 파견 지역별 일정

ㄱ. 러시아 사할린 한국교육원

일시 : 2002.06.29.(토) ~ 07.06.(토)

파견자 : 강현화(경희대 교수), 김문오(국립국어연구원)

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

일시 : 2002.07.02.(화) ~ 07.09.(화)

파견자 : 박동호(서울대 어학연구소 연구원), 전수태(국립국어연구원)

ㄷ.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

일시 : 2002.7.9.(화) ~ 7.16.(화)

파견자 : 소강춘(전주대 교수), 박민규(국립국어연구원)

○ 파견 활동 내용

- 현지의 한국어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국어의 역사, 어문 규범, 기초 한국어 문법, 남북한 언어 차이, 언어 예절 등 한국어 관련 내용을 교육함.

- 동포 사회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파악함.
- 동포 사회의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기관 실태를 파악함.

○ 파견 교육 대상자

- 현지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학교 교사, 한글학교 교사, 한국교육원 교사)
- 한국어 보급 및 사용 관련자(기자·출판인·방송인 등)
- 한국어 교육 정책 담당자(현지 교육부 관계자)
- 한국어 연구자(대학 교수, 대학원 학생 등)

나. 동포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 초청 인원(지역) : 모두 17명 초청.

ㄱ. 러시아 11명(김아나스타샤, 압체예바 악산나(모스크바), 정마리나, 송나제즈다, 강금옥(사할린), 전스베틀라나, 고나탈리아, 김울리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수자, 칼리니첸고 아나스타샤, 프타스닉 크리스티나(하바로프스크),

ㄴ. 우즈베키스탄 3명(김이리나, 김마리나, 강블라지미르)

ㄷ. 카자흐스탄 3명(황인나, 노잔나, 임타나)

※ 예년의 경우, 중국 동포들은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보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월등하므로 이들을 한데 모아 연수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올해부터는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들을 해를 달리하여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려고 함. 올해는 먼저 구소련 지역의 한국어 교사 17명을 초청함.

○ 초청자 자격

- ㄱ. 현직 한국어 교사
- ㄴ. 한국어 관련 언론·출판계 종사자
- ㄷ.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종사자(사범대 교수, 연구원 등)

르. 한국어 어문 정책 관계자

○ 초청자 선발

ㄱ. 현지 협조 기관에 의뢰하여 추천하고 우리 원에서 심사하여 확정함.

나. 현지 협조 기관

- 러시아 모스크바 : 모스크바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 러시아 사할린, 하바로프스크 : 현지 한국교육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대한민국 영사관 및 한국교육원
- 카자흐스탄 : 대한민국 대사관 및 한국교육원
- 우즈베키스탄 : 대한민국 대사관 및 한국교육원
- 키르기스스탄 : 한국교육원

○ 연수 기간 : 2002년 8월 21일 ~ 9월 4일 (2주일간)

○ 연수 장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소재 드림텔(국제청소년센터) /
국어연구원 강의실

○ 연수 내용

- 국어의 어문 규범, 국어의 역사, 국어 문법, 언어 예절, 한국어 교수법 등 국어에 관련된 주요 내용 강의
- 문화 시설, 유적지 답사와 산업체 견학

2. 제48차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결정 사항

제48차 정부·언론 외래어심의 공동위원회 결정안(2002. 11. 7.)

인 명

- | | | |
|------------|------------|-------------------------|
| • 가와이 하야오 | 河合隼雄 1928~ | 일본 임상 심리학자.
전 문화청장관. |
| • 가케하시 다케시 | 梯 剛之 1976~ | 일본 맵인 피아니스트. |

- 고노이케 요시타다 鴻池祥肇 1941~ 방재담당상.
- 고시마 마사토시 小柴昌俊 1926~ 일본 입자물리학자. 도쿄 (東京)대 명예교수. 2002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
- 구겐하임, 찰스 Charles Guggenheim 1923~2002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 귀 바오쿤 郭寶崑 1938~2002 싱가포르 극작가, 연출가.
- 나이두, 벵카이아 Venkaiah Naidu 1948~ 인도 인민당(BJP)총재.
- 네드레오스, 토르보르그 Torborg Nedreaas 1906~? 노르웨이 소설가.
- 다 실바, 루이스 Luiz Inácio 'Lula' da Silva 1945~ 브라질 대통령.
- 다나카 고이치 田中耕一 1959~ 일본 시마즈 제작소 연구원. 2002년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
- 다나카 히토시 田中 均 1946~ 일본 외무부 아시아대양주 국장.
- 다니카키 사다카즈 谷垣禎一 1945~ 국가공안위원장.
- 다이 빙귀 戴秉國 1940~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 다케나카 헤이조 竹中平藏 1951~ 금융·경제재정담당상.
- 데이비스, 레이먼드 Raymond Davis Jr. 1914~ 미국 천체물리학자, 화학자. 2002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
- 도이블러그멜린, 헤르타 Herta Däubler-Gmelin 1942~ 독일 법무장관.

- 롬브로소, 체사레 Cesare Lombroso 이탈리아 의사.
1836~1909
- 류 윈산 劉雲山 1942~ 중국 공산당 선전부장.
- 리드, 존 John Reid 영국 노동당 의장.
- 리처드, 해리스 Harris Richard 아일랜드 영화배우.
1930~2002
- 머피, 폴 Paul Murphy 영국 북아일랜드 장관.
- 모리스, 에스텔 Estelle Morris 1951~ 영국 전 교육·기능 장관.
- 모이지우, 알프레드 Alfred Moisiu 1928~ 알바니아 대통령.
- 모호이너지, 라슬로 László Moholy-Nagy 헝가리 화가.
1895~1946
- 몽고메리, 팀 Tim Montgomery 미국 육상선수.
1895~1946
- 밍크, 패치 다케모토 Patsy Takemoto Mink 미국 하원의원.
1927~2002
- 발라게르, 호아킨 Joaquín (Vidella) 도미니카 공화국 정치가.
(비테야) Balaguer 1907~2002
- 뷔트리히, 쿠르트 Kurt Wüthrich 1938~ 스위스 생물학자.
- 브레너, 시드니 Sydney Brenner 1927~ 영국 의학자. 2002년 노벨
의학·생리학상 공동 수상.
- 브루넬, 마크 Sir Marc Isambard 영국 발명가.
이점바드 Brunel 1769~1849
- 브루넬, 이점바드 Isambard Kingdom 영국 건축가. 마크 브루넬
킹덤 Brunel 1806~59 의 아들.

- 생어, 마거릿 루이즈) Margaret (Louise) Sanger 1883~1966 미국 여류 사회운동가.
- 설스턴, 존 John E. Sulston 1942~ 영국 의학자. 2002년 노벨 의학·생리학상 공동 수상.
- 스미스, 버넌 Vernon L. Smith 1927~ 미국 경제학자. 2002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
- 스즈키 가쓰나리 鈴木勝也 1938~ 일본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
- 스타이거 로드 Rod Steiger 1925~2002 미국 남자배우.
- 스투어트, 마사 Martha Stewart 1946~ 미국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 실바, 칼데론, 알바로 Alvaro Silva Calderon 1928~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국장.
- 이슈케나지, 블라디미르 Vladimir Ashkenazi 1937~ 러시아 피아니스트, 지휘자. 일본 NHK교향악단 음악 감독.
- 안토니오니, 미켈란젤로 Michelangelo Antonioni 1912~ 이탈리아 영화감독.
- 에드먼즈, 저넷 Jeanette K. Edmunds 1951~ 미국 육군 준장.
- 오시마 다다모리 大島理森 1946~ 농림수산상.
- 우오수카이넨, 리타 Riitta Uosukainen 1941~ 핀란드 국회(하원)의장.
- 윌리엄스, 테드 Ted Williams 1918~2002 미국 야구선수.
-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1957~ 방위청장관.

- 자코니, 리카르도 Riccardo Giacconi 미국(이탈리아 태생) 천체 물리학자. 2002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
- 장 멘형 江綿恒 1952~ 중국 과학기술원 부원장.
- 제르진스키, 펠릭스 에드문도비치 Feliks Edmundovich Dzerzhinskii 1877~1926 구 소련 혁명가, 정치가.
- 천 후이린 陳慧琳 1972~ 홍콩 여배우, 가수.
- 첸 자취 千家駒 1909~2002 중국 경제학자.
- 카너먼, 다니엘 Daniel Kahneman 미국·이스라엘(텔아비브 태생) 경제학자, 심리학자. 2002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
- 카반, 얀 Jan Kavan 1945~ 체코 부총리 겸 외무장관. 차기 유엔총회 의장.
- 카터, 지미 Jimmy Carter (본명 제임스 (얼) 카터 James (Earl) Carter) 1924~ 령(1977~81). 미국 정치가. 제39대 대통령. 2002년 노벨 평화상 수상.
- 커리, 에드위나 Edwina Currie 1945~ 영국 정치가.
- 케르테스, 임레 Imre Kertész 1929~ 헝가리 소설가. 2002년 노벨 문학상 수상.
- 케이멘, 마틴 데이비드 Martin David Kamen 미국 생화학자. 캐나다 태생. 95년 미국 원자력 분야 최고 영예인 페르미상 수상.
- 클라우스게오르크 폰 암스베르크 Claus-Georg von Amsberg 1926~2002 네덜란드 베아트릭스 여왕 부군.
- 클라크, 찰스 Charles Clarke 영국 교육장관.

- 클레멘트, 볼프강 Wolfgang Clement 독일 경제·노동장관.
1939~
- 클루니, 로즈메리 Rosemary Clooney 미국 가수, 여배우.
1928~2002
- 키냐르, 파스칼 Pascal Quignard 프랑스 작가. 방황하는
그림자들(Les Ombres
errantes)로 2002년 공쿠
르상 수상.
- 토드, (레지널드 Sir (Reginald Stephen)
스티븐) 가필드 Garfield Todd 1908~ 남로디지아 (현 짐바브웨)
2002 정치가.
- 파섹, 저스틴 Justine Pasek 1978~ 미스 유니버스(2002년).
파나마인.
- 펜, 존 John B. Fenn 1917~ 미국 화학자. 2002년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
- 프랭크하이머, 존 John Frankenheimer 미국 영화감독.
1930~2002
- 허 귀창 賀國強 1944~ 중국 공산당 조직부장.
- 허 귀창 賀國強 1944~ 중 국 공산당 조직부장.
- 헌터, 킴 Kim Hunter 본명 미국 여배우.
재닛 콜 1922~2002
- 헬름스, 리처드 Richard (McGarrah) 미국 전 CIA 국장.
(맥개러) Helms 1913~2002
- 호비츠, 로버트 Robert H. Horvitz 미국 과학의학자. 2002년
1947~ 노벨 의학·생리학상 공
동 수상.
- 호소다 히로유키 細田博之 1944~ 오키나와·북방, 과학기술
담당상.

일반 용어

- 세팍타크로 Sepak(말레이)
Takraw(타이) 발리볼과 비슷한 경기의 일종
- 옥스팜 Oxfam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1942년에 발족한 세계의 빈
민 구제 기관. 제6회 서울
평화상 수상.
- 페르미상 Fermi Award 미국 내에서 원자력 분야에
현저한 공적을 올린 사람에
게 주는 상. 이탈리아 물리학
자 엔리코 페르미(Enrico
Fermi, 1901~54)의 이름에
연유. 1954년 창설.

3.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제20차 회의 보고

I. 회의 개요

1. 일 시: 2002년 11월 18일(월)-22일(금)
2. 장 소: 베트남 하노이 니코 호텔
3. 참가자: 김홍규(고려대), 정우봉(고려대), 남택주(기술표준원),
이준석(국립국어연구원)
4. 참가국: 한국, 중국, 일본, 북한, 홍콩,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미국

II. 주요 결정 사항

2.1 차기 회의 일정

(가) 제21차 회의(2003. 04. 7. -11.): 중국, 베이징

(나) 제22차 회의(2003년 11월 경): IRG 총회는 북한에서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12월 중순까지 북한은 IRG에 회의 개최 가부를 통고하기로 하였음.

(다) 제23차 회의(2004년 봄): 타이베이나 유니코드에서 개최

(라) 제24차 회의(2004년 가을): 한국, 장소 미정

2.2 전산 상용 한자 (Basic Subset: 관련 문서 N934, N935, N947)

필요성과 자중,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함.

(가) 필요성: ISO 10646-2의 27,484자의 한자는 휴대폰이나 이메일 에서 검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한자를 중심으로 상용한자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자중 및 선정 기준

(1) 각국의 국가 표준 한자(괄호 속은 상용 또는 교육용 한자수)

- (a) 중국: G0 (level 1): 3755(3500)
- (b) 대만: 5412(4808)
- (c) 홍콩: 4818(4759)
- (d) 일본: (levels 1 and 2): 6356(1945)
- (e) 한국: 4620(1844)

(2)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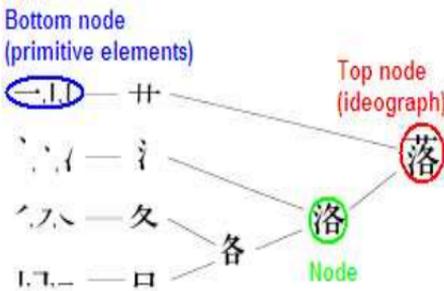
- (a) 교육용 한자
- (b) 일반 출판물
- (c) 초중등 교과서
- (d) 일반인들의 일상 언어에서 빈도 높은 한자
- (e) 일반인들의 인명과 지명에 쓰이는 한자

전산 상용 한자에 대해 북한은 12월 열리는 WG2회의까지 검토하여 의견을 내기로 함. 각국은 3월까지 자중 선정에 대한 결과를 IRG에 통고해야 함.

2.3 통합 규칙에 대한 상세화 (관련 문서. N941, N949, N951, N953, N955)

통합 규칙 Anex S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토의하였음.

(가) 통합의 일반적 개념



(1) 구성소들(components)의 개수가 다른 경우 코드 분리(dis-unified) 하는 예,

崖·厓, 肱·肱, 降·夆

(2) 두 개의 한자들에서 구성소(component)의 구조(structure)나 위치(position)가 다르면 같은 구성소라도 코드 분리(dis-unified) 하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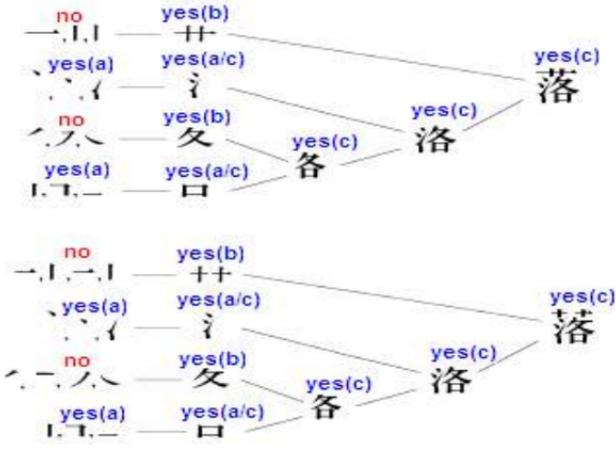
峰·峯, 荊·荊

(나) 이번 회의에서 강화된 통합(Unification)의 기본 원리

두 개의 자형이 변이형(Variant)이 변이형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자종에서 역사적인 파생 형태(cognate)인가를 먼저 판단하여 비계열성(Non-cognate)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명백한 증거(문맥과 관련한 특이한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 한 통합함. 이 경우 별개의 전거(seperate source)라는 기준이나 획수의 특이성은 고려하지 않음.

(1) 落과 落의 판단 과정 예



그러므로 落과 落은 통합 가능함.

(2) 통합되는 부수의 변이형태

辶·辶·辶,	示·示·示,	艮·艮·艮,	食·食·食,
黃·黃,	盥·盥,	曷·曷,	包·包,
青·青,	每·每,	册·册,	爭·爭,
畚·畚,	录·录,	步·步,	者·者,
臭·臭,	并·并,	骨·骨,	呂·呂,
直·直,	鼎·鼎,	吳·吳·吳,	眞·眞·眞,
爲·為,	单·单,	曾·曾·曾,	成·成,
專·專,	内·内,	晉·晋,	龜·龜,
卅·卅,			

(3) 통합하는 변이자형

熏 熏

董·董

直·直·直

直·直·直

(4) 통합의 예외

만약 어떤 구성소가 통합 규칙에 따라 통합(unified)된다 하더라도 다음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2.4 세번째 추가 한자(Ext C1)의 편집 보고 (관련 문서: N928, N952)

(가) 편집을 위한 전체 일정

- (1) 2002.12.16: CJK C1 version 2.1의 배포
- (2) 2003.02.14: CJK C1 version 2.2의 배포

(나) 편집의 세부 일정

- (1) IRG 기술 편집인(TE)은 2002년 12월 16일까지 CJK_C1 v2.1 (E1)을 각국의 대표 편집인에게 전달한다.
- (2) 각국의 대표 편집인은 2003년 1월 17일까지 E1에 대한 검토 결과를 IRG 대표 편집인(Chief Editor)에게 제출하고 IRG 대표 편집인(CE)은 그 결과로서 D2(20차 회의에서 각국이 검토를 요청하였던 자형 자료)를 작성한다.
- (3) IRG 기술 편집인(TE)은 그 결과를 받아서 정리하여 CJK_C1 v2.2를 완성하며, 이를 각국의 대표 편집인들에게 2003년 2월 14일까지 전달한다.

- (4) 각 회원국의 대표 편집인은 그 한자들의 증거들(evidences:동일 기원의 변이형태가 아니라는 문맥적 의미)를 찾아서 IRG 대표 편집인(CE)에게 2003년 3월 7일까지 제출한다.
- (5) IRG 대표 편집인(CE)은 증거들을 정리해서 각국의 편집인에게 2003년 3월 14일까지 제출한다.
- (6) 각국의 대표 편집인들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해서 IRG#21회의에 참석한다.

(다) CJK Ext. C1 선정을 위한 대표 편집인(Chief Editor) 임명

각국은 2002년 12월 16일까지 연락 역할을 수행하거나 세번째 추가 한자의 제출 품질(통합 규칙 적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 편집인을 임명해서 보고해야 한다.

2.5 차기 IRG 의장 선출

차기 의장에 장조우차이(張軸材)를, 대표 편집인(CE)에 천장(陳壯), 기술 편집인(TE)에 왕샤오밍(王少明)을 선출함.

2.6 오자필획 및 획수 (관련 문서. N942, N954, N954A) 수정

2.7 Annex S of ISO 10646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 (관련 문서. N951)

싱가포르의 Mr. James Seng에게 2003. 1. 21까지 제출하고 이를 수합하여 Mr. Seng은 다음 IRG 회의까지 보고함.

III. 분석과 대책

3.1 이번 회의의 특성

20차 회의는 전산 상용 한자의 제출에 대해 각국의 공감을 형성하였고,

19차에 제출된 세 번째 추가 한자(Ext. C1)의 검토를 통해 자형 제출과 통합 기준으로 삼았던 아넥스 에스(Anex S)의 상세화와 자형 통합(Unification)의 기준을 강화하는 회의였음.

3.2 전산 상용 한자에 대한 부처간 설명회의 필요

내년 3월 전산 상용 한자의 자종을 IRG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새로이 제정하려는 전산 상용 한자에 대해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와 관련 업체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2월초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됨.

3.3 세 번째 추가 한자(Ext. C1)의 제출 자형의 기준 세밀화

국가 표준으로 등록된 이형자(Variant)를 제외하고, 각국은 정체자만을 등록하는 것으로 제출 기준을 강화하였음. 이형자는 이형자 테이블에 배열하여 코드를 부여할 계획임.

3.4 세 번째 추가 한자(Ext. C1)의 강화된 기준에 따르는 대응책 마련

한국어 세 번째 추가 한자(Ext. C1)에 제출한 4,074자 가운데 정체자의 증거들을 찾기 위한 연구 지원 필요.

4. “문장 부호 세칙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되어 있는 문장 부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문장 부호 세칙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문장 부호 세칙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 2002. 11. 23. 9:20~12:50

○ 장소: 국립국어연구원 세미나실

○ 일정

인사말: 남기심(국립국어연구원장)

발표

사회: 김희진(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연구부장)

발표: 임동훈(한림대) “현행 문장 부호의 보완과 세칙안”

토론: 남영신(국어문화운동본부)

권재일(서울대)

발표: 채완(동덕여대) “세칙안의 마침표와 쉼표”

토론: 안상순(금성출판사)

송현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 민현식(서울대) “세칙안의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

토론: 조경애(두산동아)

한규희(중앙일보)

종합 토론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장 부호 세칙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에 문화관광부의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장 부호 세칙’을 문장 부호 사용을 위한 권장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5. 국어문화학교 운영

I. 원내 국어문화학교

원내 국어문화학교 국어반 강좌는 10월, 11월에 각각 두 번 씩 열렸다. 2002년도 원내 국어문화학교 총 수강 인원은 1,457명이다.

가. 열린 시기와 수장 인원

- 제83기 10. 14.~10. 18. (공무원·일반인반) 127명
 제84기 10. 21.~10. 25. (공무원·일반인반) 113명
 제85기 11. 11.~11. 15. (공무원·일반인반) 105명
 제86기 11. 18.~11. 22. (공무원·일반인반) 96명

나. 강좌 내용

국어 문법	남기심(원장), 이병규(학예연구사)
한글 맞춤법 1, 2	정호성(학예연구관), 조남호(학예연구관), 이승재(학예연구관)
띄어쓰기 1, 2	양명희(학예연구관), 박용찬(학예연구관), 최혜원(학예연구사), 이운영(학예연구사)
바른 발음1	김선철(학예연구사)
바른 발음 2	이계진(방송인)
외래어 표기법	정희원(학예연구관)
로마자 표기법	김세중(부장)
표준어 규정	고성환(세계화재단 연구원)
국어 순화	최용기(학예연구관)
언어 예절	전수태(학예연구관)
국어의 화법	전영우(수원대 대우 교수)
바른 문장 쓰기 1	김희진(부장)
공문서 바로 쓰기	김문오(학예연구사)

글쓰기 1	김옥순(학예연구관), 이준석(학예연구사)
글쓰기 2	정호성(학예연구관), 정희창(학예연구관), 이준석(학예연구사)
문학과 언어 시청각 학습 1, 2	이상섭(연세대 명예교수)

II.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국내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10월에 33곳 2,305명, 11월에 13곳, 12월에 1곳 1,095명에게 가서 강의하였으며, 2002년도 총 횟수는 182회, 16,561명이 수강하였다.

일 시	장소/강사	수강생	강의 내용
10. 1. 08:30-10:00	경북의성군청 이대성	공무원(200)	바른 국어생활
10. 2. 14:00-16:00	전주북초등 김선철	교직원(65)	띄어쓰기
10. 4. 14:00-17:00	광명시평생학습원 정희원	교사(30)	기초맞춤법 강의
10. 4. 14:30-15:30	충주성남초등 이병규	교원(50)	기초 맞춤법 강의
10. 4. 14:00-15:30	울산시 북구청 이규호	공무원(100)	바른 문장 쓰기

10. 7. 17:00-18:30	대전지법(공주) 양명희	공무원(50)	바른국어생활
10. 8. 15:00-16:30	안산석수초등 김한샘	교사, 학부모(70)	언어 예절, 바른 문장쓰기
10. 9. 14:00-16:00	동두천초등 이승재	교사(50)	바른 문장 쓰기
10. 9. 08:30-10:00	서울출입국사무소 김인균	공무원(100)	바른국어생활 한글 맞춤법의 이해 바른 문장 쓰기
10.10. 14:30-16:10	김제중앙초등 조남호	교사(55)	언어 예절
10.10. 14:30-16:00	순천부영초등 이규호	교직원(70)	한글 맞춤법의 이해
10.11. 14:00-17:10	서귀포교육청 김세중	서무직원(80)	한글 맞춤법의 이해 띄어쓰기
10.12. 10:00-12:00	용산메릴랜드대학 정호성	한국어교사(12)	바른 국어생활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규정,
10.14. 08:50-10:00	제주교도소 김세중	공무원(60)	우리말 바로 쓰기

10.14. 09:00-09:50	울산구치소 이대성	교정공무원(70)	생활실용 국어문법
10.14. 09:00-10:00	대구교도소 김문오	공무원(70)	언어 예절
10.14. 09:00-10:30 14:00-15:30	군산교도소 김선철	직원(70) 수형자(70)	언어 예절
10.14. 14:00-17:00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김문오	판사 및 공무원(50)	국어 순화 언어 예절
10.15. 14:00-15:00	남양주시 외부중학교 김인균	학부모(50)	바른 국어생활
10.15. 14:00-15:30	충남도선거 관리위원회 이규호	공무원(30)	한글 맞춤법 강의
10.16. 15:00-16:30	의정부서초등 정희창	학부모(50)	언어 예절
10.17. 11:10-12:00	도당고등학교 정희원	교사 및 학부모(70)	언어 예절
11.17. 10:50-12:20	의정부청룡초등 이병규	교육실습생(61)	띄어쓰기

10. 18. 14:00-16:00	목포해양대 정호성	교직원(60)	한글 맞춤법의 이해
10.23. 14:30-16:30	일산한국경진학교 이운영	교직원(60)	언어 예절 바른 국어생활
10.23. 15:00-16:30	의정부서초등 김인균	교사(50)	국어 순화
10.23. 15:00-17:00	의정부호동초등 양명희	교사(60)	한글 맞춤법의 이해
10.24. 10:00-12:00	파주시립법원도서관 이준석	주부, 직원(50)	언어 예절
10.28. 15:00-16:30	부산서동초등 이준석	교직원(50)	맞춤법, 표준어
10.23. 15:00-16:30	남양주양정초등 이규호	교사(120)	언어 예절
10.30. 15:00-16:30	남양주양정초등 김인균	교사(40), 학부모(80)	언어 예절
10.30. 15:00-16:30	경상대학교 김옥순	공무원(100)	국어 순화
10.31. 15:00-16:30	평택정담정보 통신고등 조남호	교사(52)	속담의 이해

11. 1. 09:30-10:30	경남 산청군청 이규호	공무원(100)	바른 국어생활
11. 8. 14:30-16:30	진안교육청 이병규	초중교원(100)	한글 맞춤법의 이해
11.11. 15:00-16:30	안산 삼일초등 이병규	교사(70)	띄어쓰기
11.11. 13:00-17:00	대전고등법원 조남호	판사 법원직원(60)	한글 맞춤법의 이해 띄어쓰기 속담의 이해
11.11. 09:00-09:45	수원구치소 김인균	교도관 경비교도(100)	국어 순화, 언어 예절
11.11. 09:00-10:00	의정부교도소 이규호	공무원(80)	속담의 이해
11.13. 14:30-16:30	일산 한국경진학교 김선철	교사(60)	언어 예절
11.13. 14:00-16:00	용인 대현초등 이운영	교사(60)	바른 문장 쓰기
11.13. 14:00-16:00	제주 동광초등 이준석	교사(65)	한글 맞춤법의 이해
11.13. 13:00-14:00	남양주미금초등 정호성	교사, 학부모(50)	한글 맞춤법의 이해

11.18. 09:00-09:50	청주교도소 이규호	교도관 경비교도대(70)	언어 예절 바른 국어생활
11.18. 09:00-10:00	영등포구치소 김인균	공무원(80)	바른 국어생활
11.30. 11:30-13:00	제주 오현고등 박창원	교사 어머니회(50)	바른 국어생활
12. 2. 14:00-16:00	서천 군청 박용찬	공무원(150)	바른 문장 쓰기

6. 인사발령

정희창 :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발령(2002년 10월)

7. 새국어생활 유가지(有價誌) 전환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991년부터 생활 언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알려서 국민들의 언어 생활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새국어생활』을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2,500부를 발간하여 관계 기관과 국어학 전문가들에 게만 한정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어학 전문가와 국어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국어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구독을 희망하시는 데에 따라 2003년 봄호부터는 유가지로 전환하여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새국어생활』을 읽혀서 국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본래 발간 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새국어생활』의 출판 및 판매권 계약을 위해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2월 4일 홈페이지에 정식 입찰 공고를 내었고, 12월 18일 입찰 제안서를 받은 후 일련의 심사 과정을 거쳐 『새국어생활』의 출판 및 판매처로 “도서출판 한국문화사” (전화: 464-7708, 전송: 499-0846)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서출판 한국문화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새국어생활』의 판매 가격은 신국판 280면을 기준으로 6,000원이고, 1년 이상 정기구독자에게는 5,000원의 할인된 가격(연 20,000원)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8. ‘우리말 가꾸기 운동’에 보내주신 독자의 의견

1. 살려 쓰고 싶은 토박이말

1. 꾸척스럽다

생각지도 않고 잊고 있었던 사람이나 물건이 나타나고, 행위가 벌어질 때, “아이가 꾸척스럽네” 하며 놀라는 기색을 보이면서 사용하는 말로서 주로 전남의 순천, 여수, 광양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임.

(김정래 님/전남 순천 금당초등학교)

2. 꾸다

“쌀을 꾸다”, “돈을 꾸다”의 ‘꾸다’는 같은 액수나 분량을 값으면 되는 경우에 사용하고,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칼좀 빌려.”, “자전거를 빌려 댔다.”의 ‘빌리다’로 구별하여 사용할 것.

(유만근 님/서울 종로구 명륜동)

3. 일성

‘입성, 먹성, 살성, 마음성’ 등과 같은 계열의 접사이다. “일성 사납다”, “일성머리 고약하다” 등에서 쓰임을 보이는 제주도 사투리임.

4. 글꼭지

‘문단, 단락’이라는 말 대신에 쓰고 싶은 말임.

(장재성 님/경기도 김포시 풀무동 1번지 길훈 아파트 104동 1310호)

5. 갈미리다

안동 방언에서 ‘감추다’의 뜻임.

6. 도둑히다/도덕히다

안동 방언에서 ‘도둑질하다’의 뜻으로 쓰는 말. 안동에서는 ‘도둑질하다’는 말은 쓰이지 않음.

(김차균 님/충남대학교 언어학과)

7. 빗자락

비의 쓸리는 밑 부분

(이성구 님/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24-54)

II. 외래어를 다듬은 말

1. 움바뀌

‘움직이고 바뀌는 그림(動畫)’의 뜻으로 ‘애니메이션(animation)’ 대신에 사용할 것을 제안함.

2. 들방손님/날방손님

‘체크인’ 대신에 ‘들방손님’으로, ‘체크아웃’ 대신에 ‘날방손님’으로 다듬을 것을 제안함.

3. 노느매기

지난 호에 강신항님께서 ‘각자부담’을 옛말인 ‘되로리’로 제안한 것에 대해 ‘노느매기’가 더 느낌이 와 닿는다는 의견을 보냄.

4. 노가리지/몫지/사이지

씨를 흩어 뿌리는 파종법인 ‘노가리’에 착안하여 신문의 안내 전단을 ‘찌라시’라는 일본말 대신에 사용할 것을 제안함. ‘본지’는 ‘몫지’로, ‘간지’는 ‘사이지’로 다듬을 것을 함께 제안함.

(장재성 님/경기도 김포시 풀무동 1번지 길훈 아파트 104동 1310호)

5. 까끄미

쓰메끼리(瓜切) 대신에 ‘다림이’에서 ‘다리미’가 온 것처럼 ‘깎음이’에서 나온 ‘까끄미’를 제안함.

6. 차(茶)우리미

규스(急須)를 다듬은 말.

7. 쪽정모음

[ə]와 같은 슈와(Schwa) 모음을 어원에 따라 다듬은 말.(유만근 님/서울 종로구 명륜동)

이번호에는 『새국어생활』 유가지(有價誌) 전환으로 우편엽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가꾸기 운동’에 의견을 보내실 독자들께서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관제엽서에 아래의 형식으로 의견을 적어서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 새국어생활 담당자앞

“우리말은 우리의 얼”

<외국어를 다듬은 말>

<살려 쓰고 싶은 토박이말>